

‘메시 두골’ 바로셀로나 아스날 기선제압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원정 2-0 승리

FC바르셀로나(스페인)가 아스날(잉글랜드)을 따돌리고 2015~2016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8강행에 다가갔다. 바르셀로나는 2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 1차전에서 아스날을 2-0으로 꺾었다. 원정에서 승리를 챙긴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두 골차 이상으로 패하지 않는다면 8강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리오넬 메시는 두 골을 모두 책임지며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첼시 시절 메시를 상대로 좀처럼 실점을 헌납하지 않았던 골키퍼 페트르 체흐는 이날 경기에서 기분 좋은 기록에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어렵게 16강에 합류한 아스날은 그 기세가 꺾일 위기에 놓였다. 바르셀로나를 맞아 비교적 잘 싸웠지만 역습에 당한 것이 아쉬웠다. 바르셀로나는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 네이마르로 이어지는 MSN 라인을 가동했다. 아스날은 올리비에 지루를 최전방에 둔 채 메스트와질, 알레시스 산체스 등으로 2선을 꾸렸다. 아스날은 전반 21분 알렉스 옥슬레이드 캠벨라인이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혀 선제골에 실패했다. 전반 추가 시간 바르셀로나 수아레스가 시도한 헤딩슛은 아스날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들어 공격의 비중을 높였다. 후반 4분 네이마르가 골키퍼와 마주했다. 그러나 그의 발을 떠난 공은 빠르게 각도를 좁히고 나온 체흐를 피하지 못했다. 첫 골은 후반 26분에 나왔다. 바르셀로나의 빠른 역습이 돋보였다. 수아레스가 빠른 공을 네이마르가 질주 후 메시에게 넘겼다. 순식간에 체흐와 맞서게 된 메시는 침착한 왼발슛으로 굳게 닫혀있던 아스날의 골문을 열었다. 메시는 후반 38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까지 직접 차 넣어 2-0을 만들었다. 아스날의 플라미니는 교체 투입 후 1분 만에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인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메시 선취골에 바로셀로나 동료선수들이 함께 환호하고 있다.

불필요한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주 체면을 구겼다. 또 다른 우승후보인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지난 대회 준우승팀인 유벤투스(이탈리아)는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원정감에 오른 뮌헨은 전반 43분 혼전 중 흘러 나온 공을 토마스 뮐러가 오른발로 마무리 해 리드를 잡았다. 후반 10분에는 아르연 로번이 자신의 특기인 드리블 후 왼발 감아차기로 두 번째 골에 성공했다. 세계 최고의 골키퍼로 불

리는 잔루이지 부폰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로번의 솜은 완벽한 제적을 그리며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홈팀 유벤투스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후반 18분 마리오 만주키치의 패스를 받은 파울로 디발라가 만회골을 얻어냈다. 공세를 이어가던 유벤투스는 후반 31분 알바로 모리타가 머리로 찔러준 공을 스텔라노 스투리치가 세도하면서 마무리하며 기어코 균형을 맞췄다. /김민근기자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는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기간 중 대회에 참가한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스포츠(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의 선수의 선수가 폭력을 경험하고, 일부는 성폭력을 경험하는 등 여전히 선수들이(성)폭력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회는 스포츠계에서(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종목별 경기장에 스포츠인권 카페를 운영한다. 동계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관련 상담·신고제도 및 인권교육을 알리는 것은 물론 스포츠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할 계획이다. 체육회는 2009년부터 '스포츠인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인권이라면 누구나 인권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김민근기자

‘리틀 이상화’ 김민선 “성장 가능성 보여주고싶다”

세계 스피리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출전 포부

‘리틀 이상화’로 불리는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기대주 김민선(17·서문여고)이 ‘2016 세계스피리트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김민선은 지난24일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세계 스피리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어떤 선수를 이긴다기보다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기록을 달성하고 싶다”며 “그렇게 되면 많은 선수들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리틀 이상화로 소개되는 김민선은 지난 22일 막을

내린 릴레함메르 동계유스올림픽 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한국빙속의 차세대 주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민선은 이날 “앞으로 큰 대회가 많이 남았는데 이번 대회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며 “한국에서 개최되고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빙속여제’ 이상화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녀는 “상화 언니는 다른 선수들보다 100m 기록이 좋은데 이는 내 단점이기도 하다”며 “이같은 장점을 닮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화 언니는 세계 정상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데 나도 성장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스피드 종목의 단거리 최강자를 가리는 세계스피리트선수권 대회에서는 참가선수들이 500m와 1000m를 하루에 한 번씩 이틀간 총 4차례 활주해 합산한 기록으로 종합 우승자를 정한다. 16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8개국에서 출전한 남녀 32명의 선수가 단거리 최강자의 자리를 놓고 격돌한다. 해외선수는 남자 500m 세계기록을 보유한 러시아의 파벨 콜리즈니코프를 비롯 사니 데이비스(미국·남자 1000m 세계기록), 브리트니 보우(미국·여자 1000m 세계기록) 등 세계신기록 보유자 3명이 나온다. /김민근기자



체육진흥공단,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창섭)과 한국무역협회(회장·김인호)는 25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6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2016)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레저용품 분야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SPOEX는 매년 5만여 명이 관람하는 스포츠·레저 전문전시회다. 올해에는 국내기업 375개사 해외기업 45사 등 총 420여개사가 참가하는 등 1600개 부스 규모로 개최된다. 헬스와 피트니스, 스포츠용품, 캠핑카, 아웃도어, 캠핑, 자전거, 수중·수상 스포츠 및 익스트림 레저 등 다양한 분야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스포츠레저 전문가 및 일반인들을 위한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2월25~26일)와 서울국제스포츠산업포럼(26일), 월드피트니스연맹(NABA) 클래식 대회(27~28일), Ife Fitness Convention(27~28일),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세미나(25~28일), 운동장체육시설 사업설명회(26일), SPOEX 카라비닝 랠리(26~28일·미사리)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김민근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 폭력·성폭력 예방 홍보활동

동부 허웅 블록슛, 팬들이 뽑은 하반기 최고 명장면

원주 동부 허웅(23)의 블록슛이 프로농구 하반기 팬들이 뽑은 최고 명장면에 선정됐다. 한국농구연맹(KBL)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2015~2016 KCC 프로농구 ‘당신이 고르는 KBL 하반기 최고 명장면?’ 투표 결과 허웅의 블록슛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허웅은 지난해 12월11일 전주 KCC전에서 김태술의 레이업을 완벽하게 블록해내며 홈 팬들을 열광케 했다. 이 장면은 총 6325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2354표(37.2%)를 얻어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했다. 고양 오리온 조 잭슨이 지난해 12월30일 원주 동부전에서 김주성을 앞에 두고 터뜨린 강력한 윌랜드 덩크는 1209표를 획득해 2위를 차지했다. 앞서 상반기 명장면 투표에서는 오리온 조 잭슨이 창원 LG 김종규를 앞에 두고 터뜨린 화려한 ‘인유어페이스’ 덩크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광복을 느끼고 민족의 얼에 광복을 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